

## 캄보디아 농식품 소식

(Phnom Penh Post)

### 새로운 현미 쌀 표준안 마련(9/19)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의 현미 도정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표준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이 표준안은 현미의 시장 진출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산자부 산하 표준원의 짠보린 부원장은 이번의 현미 도정 표준안은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캄보디아 쌀 진출을 증진하고자 추진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표준으로 백미와 현미의 국제적인 도정 표준이 수립되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화학 첨가제가 없이 안전하게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은 지금까지는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쌀이 모두 백미였기에 현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성이 떨어져 왔었다.

현미는 비타민 B1 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현미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관리에 의하면 이 표준은 생산과 도정 공정, 포장, 저장 및 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 말레이시아 관광상품전시회 열려(9/24)



[사진 : 프놈펜에서 3 일간 열린 말레이시아 여행 쇼핑전시회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캄보디아 사람은 올 상반기 동안 말레이시아를 24,000 명이 방문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사람은 캄보디아를 동기간 동안 지난해 보다 11.1% 가 늘어난 54,000 명이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 후세인대사는 프놈펜에서 3 일간 개최된 말레이시아 여행 쇼핑 상품전시회에서 양국간의 관광과 무역을 언급한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증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프놈펜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20 개 이상의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관광 상품을 제공하였다.

후세인 대사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를 보면 현재 조금 커지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와 프놈펜간의 항공편의 증가가 관광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9 월 20 일 발표된 2012~2020 관광 전략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관광부 장관에게 아세안 국가들과 +3 국가를 포함하여 관광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시한바 있다.

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 중에서 41.3%를 차지한 712,380 명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국간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2010 년보다 34%나 증가한 3 억 1,950 만 달러에 달했다.

### **고무 가격 저가에서 오름세로(9/25)**

고무가격이 지난주 톤당 2,500 달러로 올라 그 동안 지속되어온 저가 추세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톤당 100 달러가 올라 4.2% 올랐다. 6 월 톤당 3,000 달러이던 고무가격이 그 후 점차 내려왔다. 농림수산부의 담당자도 2011 년과 비교할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고무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 국제 조직의 지원, 우기의 3 가지를 들었다.

캄보디아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세계 시장의 가격, 미국, 중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과 석유가격의 하락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우기에 들어선 캄보디아는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고무 생산국가인 말레이시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재고량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 유기농쌀 처음 유럽으로 수출(9/26)



[사진 : 프놈펜의 도정공장에서 근로자가 도정된 쌀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처음으로 유럽연합에 5 톤의 인증받은 유기농 쌀을 지난 28 일 선적한다. 이번 선적은 CEDAC 가 지원하여 생산한 유기농 쌀로 그린무역을 통해 수출된다. 수출물량은 자스민 품종으로 3 톤의 현미와 2 톤의 백미이다. 구입처는 노트르담에 있는 독일기업인 티 뷔엔데로 알려졌다. 정부기업인 그린무역은 유기농쌀을 월요일과 어제 도정을 완료된 상태라고 그린무역 대표인 비락 톤씨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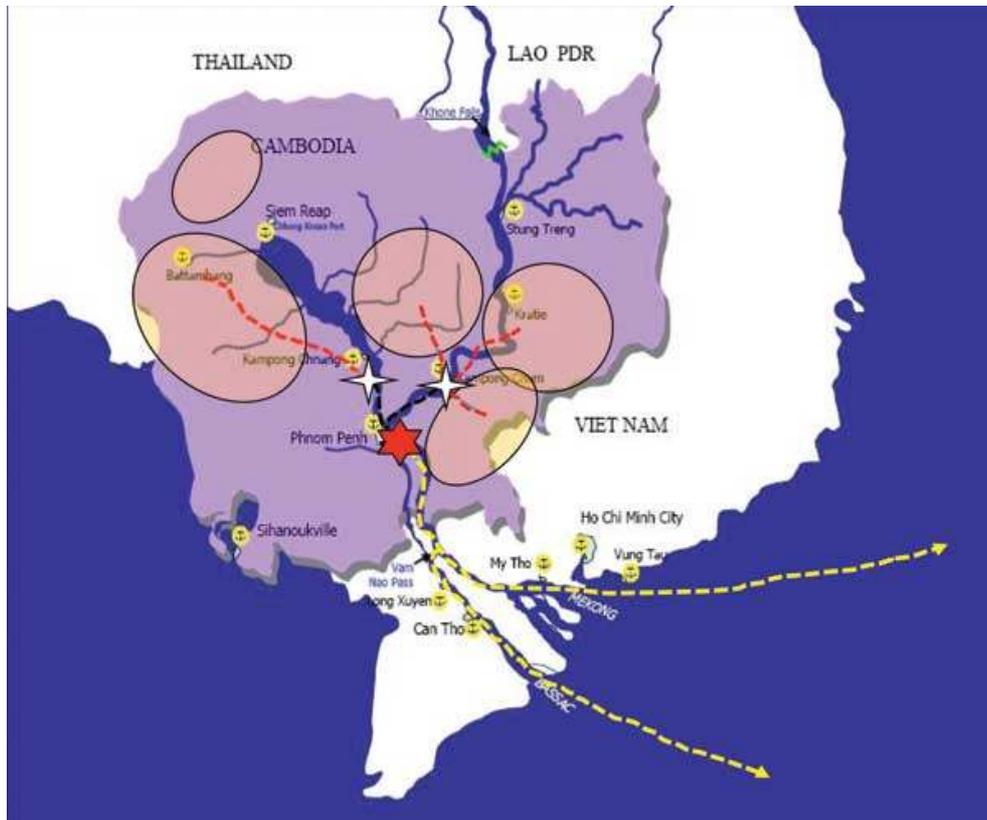
그린무역은 정부의 비축을 저장하는것이 첫째 임무이며, 두번째 임무는 국내 시장에서의 쌀 가격 안정화이며 세번째 임무는 농산물의 수출입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일본의 도정기계 업체인 사다께 장비로 갖추어져 있으며 일본 기업이 3 개월마다 기계에 미유기농 쌀의 잔재로 오염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유럽연합의 유기농 법규를 따르는 인증의 갱신도 진행되고 있다.

곤충과 해충의 제거에도 독극물의 사용을 피하고 있으며, 쥐를 잡기위해 벼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덩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홍수등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린무역에 1 만톤의 쌀을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카사바와 콩의 저장도 추진할 계획으리고 한다.

그린무역은 1998 년 설립되어 상무부의 기술감독과 재정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국영기업이다.

## 운송비 아직도 높아(9/27)



[사진 : 한국의 팬컨티넨탈화물 회사가 캄보디아의 쌀 수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로개발을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물류비가 인근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팬컨티넨탈화물(PCF)이 10 개의 컨테이너 선적을 캄보디아, 태국과 베트남을 비교한 결과 캄보디아의 선적(FOB) 비용은 톤당 35 달러인 반면 태국과 베트남은 17 달러와 16 달러로 나타났다고 한다.

PCF 의 이재호 이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물류와 항만, 철도와 수로같은 기간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면서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의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기간산업의 부재와 물류의 열악한 시스템이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PCF 의 자료에 의하면 일일 기준 베트남은 2,000~3,000 톤을 하역하지만 캄보디아는 700~1,000 톤만이 하역 가능한 실정이다.

이 회사는 아그로-메콩 물류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로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베트남의 경우 생산된 제품이 트럭을 이용하지 않고 98%가 수로를 이용하여 이동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문에 물류비용이 낮지만, 캄보디아는 트레일러와 트럭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한다.

현재 캄보디아는 프놈펜에서 22 킬로미터 하류 지역에 프놈펜강 항만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이 완공되면 하루 1,000~1,500 톤의 물류가 하역가능하다고 한다.

### 300 만 달러 개발지원받아(9/27)

캄보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330 만 달러를 지원받아 쌀의 도정산업, 실크생산 및 개발에 사용되게 된다고 한다. 이 자금은 WTO 의 EIF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무부를 통해 지원된다.

EIF 의 3 년 기간 프로젝트는 무역 능력의 보강, 도정 쌀의 수출증대와 고급 실크 생산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며 10 월 5 일 지원받는다.

### 홍수없어 외국투자 호감(9/27)



[사진 : 상무부 짬브라시 장관이 26 일 프놈펜의 혼다 쇼룸을 둘러보고 있다.]

상무부 장관인 짬브라시 장관은 태국에 있는 외국 투자 생산업체들이 앞으로 캄보디아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캄보디아가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태국의 진출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6 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혼다 20 주년 기념식장에서 밝힌 내용으로 매년 캄보디아도 홍수를 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과 산업에 영향을 줄만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관은 홍수피해는 메콩강을 따라 농업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예보한 바에 의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홍수 피해가 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장들은 이러한 홍수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중기적으로 볼때 태국의 노동집약적인 제조 산업의 일부 공장이 캄보디아와 같이 보다 안전한 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위기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한다.

지난해 홍수는 메콩강을 따라 캄보디아 총 경작 농작물의 10%가 피해를 보았었다. 당시 태국은 농작물의 60%가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 캄보디아 정부는 2 억 달러를 지출하여 홍수로 입은 기간산업의 복구에 사용되었으며, 당시 캄보디아의 홍수 가능성을 대비한 예산이 9,000 만 달러로 정해있었다.

#### 쌀 수출, 9 월까지 지난해보다 2% 늘어(10/2)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9 월말까지 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일 열린 캄보디아 쌀 포럼에서 농림부는 9 월말까지 131,064 톤을 수출하였다. 지난해 9 월까지는 128,368 톤이었다.

이 양은 예상을 믿도는 물량이지만 대부분의 수요가 향미로 치중되어 있어 계획의 20% 정보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다소 느슨한 아프리카 지역을 집중으로 시장개척에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0 년말 도정 쌀의 수출을 촉진하고 서류 작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창구과를 만들었었다.

정부-민간협력 단체중 쌀 작업 그룹의 공동 의장인 림분헝씨도 올 쌀 수출이 지난해 보다 수출 속도가 느린것을 인정하면서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UAE 보다 많은 쌀 원해(10/2)



[사진 : 짬쁘라싯 상무부장관과 아랍에미레이트 무역장관 세이카 루브나 빈트 칼리드 알 콰시미가 1 일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캄보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쌀 수출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캄보디아 상무부 째 브라싯 장관은 1 일 아랍에미리트 무역장관 세이카 루브나 빈트 칼리드 알 콰시미가 이끄는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브라싯 장관은 UAE 는 쌀 시장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커다란 잠재 국가라고 하면서 크기가 캄보디아 보다는 작지만 쌀 수입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하였다

이웃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은 이미 UAE 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 UAE 는 쌀을 수입하여 인근의 국가들로 재수출도 하고 있는 동서 물류의 중심지이다.

UAE 사절단의 이번 방문은 저명한 사업가들과 동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사업 잠재력과 투자기회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한다.

브라싯 장관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7 억 내지 10 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가는 지난해 무역규모가 2010 년의 1,600 만 달러에서 거의 두배로 증가한 3,000 만 달러에 달했었다.

캄보디아의 올 상반기 쌀 수출은 지난 2011 년의 120,000 톤 보다 35%가 감소한 78,000 톤으로 나타났다.